



제1회 '농산어촌 청년희망 현장톡톡' 토론회 결과

1. 개요

□ (일시·장소) '19. 11.7(목) 14:00~17:30 / 전북 순창 방랑싸롱*(복합문화공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26

□ 참석인원 : 총 31명 (붙임1 명단 참조)

- (외부) 전북 및 순창 공무원, 순창지역 청년 등 22명
- (내부) 농특위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박경위원장, 농산어촌청년희망 네트워크, KM플러스 이상민연구원, 농특위 사무국 곽은경사무관 등 9명

□ 주요 내용

-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 활성화 정책 발표
 - 2020년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전북 김선구팀장)
 - 2019~2020년 순창군 청년정책 추진계획(순창 이도윤계장)
- 순창청년들의 사례(귀농귀촌, 문화, 지역혁신 등 청년활동 분야별) 발표
 - 지역 리브랜딩, 공정여행 프로그램 기획(BOVO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장재영)
 - 4H 청년활동 사례(순창4H 박기완회장, 흥봉진사무국장)
 - 순창의 바른 먹거리, 소비자 안심 구매(오지네협동조합 대표 신성원)
 -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는 소나기프로젝트(문화기획 방랑싸롱 설자연팀장)
 - 소농의 비빌언덕 되어주기(소소한 방아실 대표 이유미)
- 청년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토론

2. 토론회 결과

□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개선)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한군데서 얻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정보를 한군데서 받아서 조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하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확대) 정책개발단계에 청년 참여
 - 다 만든 후 이런 정책이 있다 하지 말고 정책수립단계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 자원 강화) 농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에 사회적 관계 중요
 - 현재 농업종사자나 농촌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행정과 자본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더 중요한 자산은 사회적 자산인 관계임
- (기타 의견)
 - 대부분의 청년정책이 부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인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등 좀 더 세심한 접근 필요
 - 외지인을 유입하기 위한 지원이 많다 보니 기존 농촌청년에 대한 소외 발생
 - 농업이외 다양한 일을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임업경영체에 대한 청년창업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주체가 중요한데 순창지역은 청년 주체들이 자발적이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향후계획

- 토론 결과는 농산어촌청년희망위원회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의제로 논의
- 향후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 토론회 지속 추진(11.21 강원예정)

외부 참석자 (22명)

성명	직위	소속	비고
김선구	팀장	전북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정책발표
이정주	과장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정영은	과장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송창훈	계장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김명희	담당	전북농어촌일자리센터	
이도윤외 1	계장	순창군 행정과 인구정책계	정책발표
장재영	소장	BOVO문화관광연구소	사례발표(지역혁신)
홍봉진	사무국장	순창4H	사례발표(지역청년활동)
신성원	대표	오지네협동조합	사례발표(청년농업협동조합)
설자연	팀장	문화기획 방랑싸롱	사례발표(문화기획)
이유미	대표	소소한 방아실	사례발표(귀농)
박기완	회장	순창4H	
서현국의외 8		순창 청년들	종합토론

내부 참석자 (9명)

성명	직위	소속	비고
박경	위원장	청년희망위원회(목원대 교수)	종합토론
이민수	위원	청년희망위원회(한국농수산대학 교수)	토론진행
조경호	위원	청년희망위원회(지역농업연구원 원장)	종합토론
정남교	위원	청년희망위원회(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장)	
김현희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순창군귀농귀촌지원센터 청년팀장)	
최성용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촌스럽게 대표)	
이상민	연구원	(주)케이엠플러스	*연구수행
곽은경	사무관	농특위 사무국 농어촌정책팀	행사진행 등
김진호	비서관	농특위 사무국 농어촌정책팀	행사진행 등